

■ 논문 ■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의 조우와 내적 갈등:
한국 이주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박선영

I. 들어가며

1970년대 자본주의 경제침체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즉 초국적 이주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국 역시 1990년대부터 국내로 이동한 초국적 이주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2006년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2%를 차지하는 소위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2019년 12월 현재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한국 체류 외국인은 291만명¹⁾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약 5%에 해당되는 인구다.

초국적 이주는 자본 상품 서비스의 이동과 달리 계급, 젠더, 인종, 문화, 종교, 언어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본국과 이주국에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야기하며, 경제, 정치, 문화 등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주야간 근무로 힘든 와중에도 인터뷰 요청에 언제나 흔쾌히 응해준 구술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구술 녹취를 맡아준 연구단 연구보조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 체류 외국인의 구성을 보면, 단기체류외국인(792,853명)을 제외하고 취업자격 외국인(567,216명), 외국국적동포(459,996명), 미등록이주민(390,281명), 결혼이민자(166,025명), 유학생(180,131명), 난민(5,598명) 등 중 장기 체류 이주자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9년 12월호).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차원에 걸쳐 변화를 수반한다. 또한, 그에 수반한 여러 사회현상들로 인해 사회공간적 변화가 발생하고, 한국의 경우 해외 순인구유출국, 단일문화 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의 틀이 깨지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초국적 이주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변화의 내용을 미시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생애를 통해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연구자의 편견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과 조우했을 때 직면한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즉, 초국적 이주라는 구조적 상황속의 행위자인 이주자와 이주해온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주자의 목소리를 통해 재구조화하고, 동시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국적 이주가 일상화된 시대에 한국사회가 맞부딪힌 현실을 미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회학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층위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고찰하고 이해하고자 했지만, 이주노동자를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이 흔히 갖는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과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인터뷰 내내 이주노동자의 삶을 “이해하고자” 주의를 기울였지만, 연구자의 내면과 충돌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주노동자는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 동등한 주체라고 연구자 스스로가 “다짐”했던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으며 여전히 남아있는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얼마나 더 만나야할지 모른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생애를 초국적 이주라는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인터뷰와 연구 과정에서 내적으로 연구자가 부딪혔던 갈등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갈등들이 발생한 내용을 양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비추어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정체성에 대해 반추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구술자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구술자가 초국적 이주를 감행한 배경과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송출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국가 간 임금 차이, 개인의 선택 등이 어우러져 행해지는 초국적 이주의 구체적 일반성의 맥락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구술자가 이주 후 겪은 선주민들과의 갈등과 정착과정에서의 전략 및 정체성의 내용,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마주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의 내용들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초국적 이주자와 선주민의 조우와 충돌이라는 맥락 하에 구술생애사 분석을 정리한다.

II. 연구방법 및 구술자 소개

1. 연구방법

특정 시대의 특정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그 사회 그 시대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경제 질서, 정치 질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치와 제도를 수용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개인은 생애시간 동안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실재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이력”, 즉 생애사(life history)를 만들어 간다. “이 전개과정에서 특정한 역사적 유산으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생애사적인 선(先)규범들은 개인의 경험과 행위의 ‘발현적 산물’(emergentes Produkt)로서 생애사의 내용이 된다.”²⁾ 따라서 사회변동을 경험한 사회구성원의 생애체험은 사회변동의 동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개인의 행위지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생애사는 개인의 삶의 이력 흔적으로써, 특정 사회의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구성물이다. 개인은 사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바로 역사가 되며 역사와 동시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생성물이 생애사인 것이다. 또한, 생애사는 개인이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만들어 낸, 개인이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녹아 있는 체계인데, 우리는 생애사를

2) 이회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집 3호 (2005), 129쪽.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질서들, 혹은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동시에 주체적인 의미부여로 구성된 경험조직과 행위지향”을 알 수 있다.³⁾ 이와 같이 특정한 사회의 개인과 그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낸 창발적인 구성물인 생애사는 개인과 사회 혹은 내부와 외부를 통합하는 매개물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의 동력과 변동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구술생애사는 글로 쓰인 개인기록이나 2차 문헌자료로 기록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생애를 그들의 직접구술로 복원시킴으로써 남성, 엘리트, 지배집단, 중앙중심의 연구가 아닌, 여성, 민중, 피지배자, 소수자, 경계인, 지역중심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구술자는 자본의 지구화라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자본을 쫓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왔다. 이주해 온 사회에서 구술자는 정치적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그의 생애사는 자본의 지구화라는 구조 이면에 놓인 행위자의 목소리와 함께 다수의 선주민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의 직접경험을 들려줌으로써 소수자, 경계인, 지역중심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구술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와 구술자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인적 체험과 자아에 대한 성찰은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구술생애사 분석 시 연구자는 자신의 “인종, 계급, 언어, 역사 그리고 문화 등이 교차한 복잡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한다.⁴⁾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감정, 편견, 고정관념, 기존에 축적된 지식 혹은 체험의 내용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즉, 구술생애사 연구는 연구자가 구술자의 생애에 갖는 해석, 평가, 감정에 대해 분석하고 그러한 연구자의 해석들과 반응 등이 왜 발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글의 주제인 초국적

3) 이희영, 같은 논문, 130쪽.

4) Kouritzin, “Bringing Life to Research: Life History Research and ESL”, *Test Canada Journal/Review Test Du Canada*, 17-2(2000), p. 30.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인종, 민족성(ethnicity), 종교, 그리고 문화적 가치 등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연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술자와의 만남, 그 연구현장 자체가 ‘접경지대’(contact zones)가 된다. 따라서 연구자의 국적, 인종, 종족성, 종교, 생활양식, 세계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어떤 질적 연구의 주제보다 두드러지게 부각될 수 있다. 이 접경지대에서 연구자는 특정한 위치와 입장을 가진 “입장지어진 주체(positioned subject)”⁵⁾이며 구술자 역시 연구자의 해석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연구자와 함께 “상관적 지식”⁶⁾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접경지대는 연구자와 구술자가 상호작용하며 상관적 지식을 생산하는 현상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접경지대 히스테리”⁷⁾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초국적 이주자와 연구자 간의 상호작용이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접경지대의 히스테리의 내용을 분석하고, 왜 연구자에게 그런 히스테리가 일어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고 한국사회의 국민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연구자의 반영성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의 방법은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라고도 할 수 있다. “Wall(2006)은 자문화기술지가 하나의 잘 정리된 질적 연구방법론이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다”고 주장한다.⁸⁾ 즉, 자기연구(self-study)의 하나인 자문화기술지는 자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이자, 타자들과 관련된 자아의 위치에 대한 깊은 철학적 물음과 관련이 있다.⁹⁾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만남과 그의 구술생애에서 연구자가 느낀 당혹감 및 구술자와의 괴리감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존에 지녔던 세계관 및 정체성들에 대한

5) 레나토 로살도, 권숙인 역, 『문화와 진리』 (서울: 아카넷, 2000), 37쪽.

6) 레나토 로살도, 같은 책, 320쪽.

7) 레나토 로살도, 같은 책, 68쪽.

8) 김영천 이동성,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19권 4호(2011), 3쪽.

9) 김영천 이동성, 같은 논문, 3쪽.

비판적 자기연구라는 측면에서 자문화기술지의 연구방법을 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2. 구술자 소개

본 연구를 위해 만난 이주노동자 쿠마일(가명) 씨는 파키스탄 남성이며, 그는 고용허가제¹⁰⁾를 통해 2012년 7월 25일 한국으로 왔다. 그를 소개 받은 것은 ‘인천 서구 민중의 집’ 회원을 통해서였으며, 섭외 기준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한국 거주 기간이 4년 이상인 이주노동자였다.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섭외기준은 연구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이었으며, 4년 이상의 체류기간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머물 수 있는 최장기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질적 연구에서 구술자를 선정할 때 대표성과 인터뷰 인원 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론적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해석에 의해 실재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구술생애사 연구는 특정 시대, 특정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그 사회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진 구체적 생애를 통해 그 사회변동의 동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개인의 행위지향의 변화를 분석하고 하나의 사례를 유형화함으로써 학문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구술생애사 연구는 사례의 일반성과 대표성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특정 조건에서 포착되는 생활세계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현하고 있다.”¹¹⁾

10)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2003년 8월 국회 통과되어 2004년 8월 17일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렸던 산업연수생제(1993년 11월 도입)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9년 현재 동남 서남아시아 16개 국가와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산업연수생제와 달리 이주노동자들을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대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제한, 업종 이동제한, 고용주에 귀속된 재고용 권한, 최장 4년 10개월(취업기간 3년과 재고용기간 1년 10개월)의 단기 체류 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노동에 가깝다. 4년 10개월이라는 체류 기간은 외국인들의 국내 연속 5년 체류 시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정해진 최장 기간이다.

11)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집 3호 (2005), 133쪽.

‘구체적 일반성’이란, 구체적 개인의 생애사가 개인의 생애사인 동시에 그 사회를 드러내는 잠재테라는 것을 강조하고, 한 개인의 구술생애사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구술생애사는 구체적 일반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사회현상과 그 변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을 선정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그 수에 있어서도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없다.

쿠마일 씨와의 인터뷰는 2018년 7월(2회)과 8월, 2019년 5월, 2019년 12월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 인터뷰는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¹²⁾ 첫 번째 인터뷰는 인천 서구 민중의 집에서 진행했으며, 당시 부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여서 큰 딸과 함께였다. 나머지 인터뷰는 그가 거주하는 인근 시장인 인천 거북시장 근처 카페와 집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었고 구술자와 연구자 단둘이었다.

Ⅲ. 쿠마일 씨 생애사가 지닌 초국적 이주의 구체적 일반성

쿠마일 씨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20여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려줬다. 그는 5남 2녀 중 첫째 아들로 그의 원가족은 누나 2명과 남동생 4명, 부모님으로 9식구였다.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부모가 공부 못해가지고 애들을 꼭 공부시키고 싶다 해서 부모가 너무 노력 많이” 해서 누나들 모두 대학을 나오고, 작은 누나는 “의사선생”이 되었다. 본인 역시 회계 대학을 졸업하고 MBA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식구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제는 공부 못 시킨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회계사로 취직을 했다. 취직 당시 그가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었다. 쿠마일 씨의 누나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더욱이 파키스탄은 남성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들은 “무조건 살림”을 한다. 공부를 잘해도 “그냥 집에만” 있는데, “만약 살 수가

12) 본문에 구술 인용 시 ‘구술자료 수집 날짜, 인터뷰 장소, 인터뷰 회차’로 표기하였다.

없으면 그 때 여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이 돈 버니깐 보통 여자들이 집에만 있고 밖에 못 나간다”고 한다.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오기 전인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그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계학원과 학생과의 등 부업을 하며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다. 그의 월수입은 원화로 30만 원가량이었는데, 파키스탄에서 9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돈은 아니었으나 생활이 풍족한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가 한국으로의 이주노동 정보를 알게 된 것은 2011년 당시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의 형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후배 역시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부터였다. 그는 후배를 통해 한국에 가면 한 달에 15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돈은 파키스탄에서 9식구가 5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큰돈이었다.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어렵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하게 된다¹³⁾.

여기까지의 내러티브가 쿠마일 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다. 그의 내러티브는 초국적 이주를 촉발시킨 파키스탄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준다. 그는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 9식구를 먹여 살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을 감행한다. 전문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졸업 한 누나들이 있었지만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파키스탄의 사회문화적 관습¹⁴⁾으로 인해 9식구 중 돈을 벌었던 것은 그 혼자였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월수입의 5

13) 인용된 구술은 2018년 7월 14일, 인천, 1차 인터뷰

14) 파키스탄의 무슬림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의 선천적 성향은 남편, 아버지, 형제, 또는 아들과 딸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일을 의미하여 남성들의 선천적 성향은 아내, 어머니, 형제, 또는 아들과 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알라(Allah, 유일신 하나님)가 부여하신 선천적인 성향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피하도록 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가정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김준환, 「한국 내 이주무슬림의 종교와 문화변역-파키스탄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77쪽.

배나 되는 한국의 경제수준 및 임금체계는 그에게 국경을 넘어 이주를 감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초국적 이동은 “국가 간 임금 및 고용기회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데,¹⁵⁾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글로벌 자본주의는 국가 간 임금 및 고용기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본을 쫓아 노동(자)이 이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쿠마일 씨의 경우 고용기회보다는 임금 차이에 의한 이동이 주된 이유였다.

쿠마일 씨는 출신국에서 했던 일의 경력과 무관한,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질 일을 해야만 이주가 가능했다. 초국적 이주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국가 간 위계 속에서 불평등한 관계로 조직된 국가들 사이의 거대한 구조적 연계성이 만들어 낸 송출국과 유입국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촉발된다. 따라서 송출국 파키스탄과 유입국 한국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이 내보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양국의 위계적 경제관계로 인해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과 파키스탄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 송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06년에 체결했다.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파키스탄 노동부 산하의 OEC(해외고용법인)를 송출기관으로 명시하고, 구직자 명부 등재 가능 연령(18~40세),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구직자 선발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노동자의 자진 귀국 담보 보장 등 파키스탄 정부의 기본적인 노동자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양해각서에 따라 쿠마일 씨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오기 위해 치러야 할 첫 번째 관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이었다. 2011년 파키스탄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하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파키스탄인 오천 명을 접수받기로 했다. 시험 합격은 나중 문제이고, 응시

15) 이민경, 「이주정착귀환의 행위자 네트워크: 베트남 미등록 노동이주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2집(2016), 238쪽.

16) 「파키스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매일노동뉴스』, 2006년 6월 26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75> (검색일: 2020년 1월 10일)

접수를 못하면 이제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그는 당시 접수자가 만 삼천 명이 넘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쿠마일 씨는 다행히 시험 접수에 성공해서 오천 명의 대열에 끼 수 있었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자격을 한 번에 획득했다. 그가 시험을 준비한지 21일 만에 시험날짜가 잡혔으나 200점 만점에 180점을 받았고, 시험을 치른 반에서 일등을 했다고 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검사 결과 이후 추려진 구직자 명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된다. 이런 정보에 근거하여 한국의 기업주는 고용할 사람을 구직자 명부에서 선택한다. 이후 근로계약서가 송부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에 올 수 있다. “다행히” 쿠마일 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계사 일을 그만둔 지 7개월 이후의 일이었다. 쿠마일 씨처럼 한국인 고용주가 선택한 사람은 운이 좋아 한국에 들어오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자체를 접수를 못하거나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 준비자들은 엄청난 수에 이른다. 쿠마일 씨와 함께 준비했던 회사의 후배는 2019년 현재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듯 초국적 이주노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기간이 길다보니 불평등한 고용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 고용주는 선택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고용주로서도 구직자의 기술 수준이나 일 경험을 알지 못한 채 국적, 성별, 키, 몸무게에 대한 기록만 보고 임의로 선택해야 하는 모험을 해야 한다. 전에 고용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보여준 행태, ‘국민성’에 따른 유형화된 이미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감’으로 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보통 경제선진국의 이주노동자제도는 학력, 경력, 기술 수준 등의 객관화된 지표를 고려하고, 무엇보다 이주를 원하는 사람의 일 경험과 희망직종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매칭을 통한 계약과는

거리가 먼 고용주의 일반적인 ‘찍기’로 이주자가 선발된다.¹⁷⁾ 그도 그럴 것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아시아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에 고용이 허가된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받아 일하게 된다.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한해서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육체노동이라는 업종 특성상 이전 경력은 중요치 않게 여겨진다. 한국에 오기 전에 회계사였던 쿠마일 씨 역시 회계 경력과 무관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쿠마일 씨는 한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기 위해 하던 일들을 그만두면서 의도치 않게 7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쉬었지만, 일을 다시 구하고자 했을 때 일주일 만에 취직이 되었다. 그는 본국에서 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경쟁력과 9명의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을 감행함에 따라 사무노동자에서 공장노동자로, 관리자에서 육체노동자로 직업지위가 하락했다.

면담자: 처음으로 공장에 가서 일해보신거죠?

구술자: 네, 회계소에서만 회계사 일했었으니까. 제 사무실에 컴퓨터 있고 전화기 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 4명 있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일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 공장에서 일하게 됐죠. (2018년 7월 14일, 인천, 1차 인터뷰)

쿠마일 씨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자본을 쫓아 초국적 이주를 감행했지만, 본국에서 접했던 직업지위와의 불일치를 겪었다. 그러나 이는 그가 받는 월급이 본국과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상쇄되어졌다. 쿠마일 씨의 이주 생애를 통해 송출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국가 간 임금 차이,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초국적 이주의 구체적 일반성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17)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과주: 돌베개, 2014), 126-127쪽.

IV. 이슬람 정체성과 한국인 정체성의 충돌

1. 접경지대 히스테리

이주노동자와 선주민들이 조우하는 공간은 내적 접경지대(inner contact zones)라고 할 수 있다. 메리 루이스 프랫의 접촉지대(contact zones)론¹⁸⁾에 비추어 볼 때 ‘내적’ 접경지대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 가치들이 조우하고 충돌하며 융합되어가는 장(場)’으로써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간의 교차지대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초국적 이주자들과 선주민들이 마주치는 공간은 현대적 의미에서 내적 접경지대의 구체적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자와 선주민의 조우는 평화롭지 않으며, 서로 다른 생활문화와 정체성들, 그리고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한다. 이를 레나토 로살도는 ‘접경지대 히스테리(borderlands hysteria)’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문화간의 경계와 사회계층간의 경계를 건너뛴 만남에서 불러일으켜진 히스테리로 개념화된다.¹⁹⁾ 인종, 젠더, 나이, 국적, 생활양식, 지위 등이 다른 사람들 간의 문화적 교류와 교환이

18) 메리 루이스 프랫에 의해 주창된 접촉지대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는 공간으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풀기 힘든 모순과 뿌리 깊은 불평등과 억압적 상황을 종종 포함하는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 접촉지대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는 시공간을 생각하게 하고 더불어 그들의 궤도가 교차하는 지점을 환기시킨다”. 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혁 옮김, 『제국의 시선』 (서울: 현실문화, 2015), 34-35쪽. 이 글에서는 접촉지대를 접경지대로 재번역하여 서술하였다.

19) 레나토 로살도, 권숙인 역, 『문화와 진리』, 68쪽. 이 글에 사용하는 접경지대는 로살도의 ‘borderlands’가 아닌 프랫의 ‘contact zones’이다. 초국적 이주민들이 정착한 공간을 ‘borderlands’가 아닌 내적 접경공간(inner contact zones)로 개념화하게 되면, 프랫의 접촉지대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이주자들 개개인 혹은 집단 이주에 대한 유입(流入)적 사고를 지양하고 다른 정치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 혹은 집단이 만나는 시공간으로서의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는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선주민 혹은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바꿔낼 수 있으며, 이주자들에게는 동등한 위치에서 ‘선주민’과의 관계를 사고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로살도의 접경지대 히스테리의 개념이 이 글의 맥락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활용한다.

일어나는 장소인 접경지대는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것으로 간주해온 사람들에게는 신경증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공간이다. 즉, 의심, 공포, 두려움, 불편함의 감정으로 타자의 문화에 접촉한다. 이런 감정은 때로는 무시, 인종 차별적 언어 또는 육체적 폭력으로 나타난다.²⁰⁾

구술자: (처음 공장이: 인용자) 자동차 제품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중략)
거기서 9개월 정도 다니다가 거기 과장님하고 싸우다가 그만두었어요.

면담자: 왜 싸우셨어요?

구술자: 본능. 본능, 인간 차별 그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능이에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사람도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 편이 되어야 하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을 많이 당해왔어요. 인간차별은 거의 매일이에요.

(2018년 7월 14일, 인천, 1차 인터뷰)

위 구술에서 확인되듯이 쿠마일 씨와 그를 마주한 한국인²¹⁾들도 접경지대 히스테리를 경험하는데, 쿠마일 씨는 이를 “인간차별”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외국인에 대한 인간차별은 “한국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 편”이 되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그가 이를 히스테리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으며, 각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나라 사람들의 편을 들어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한, 그를 둘러싼 한국인들은 이질적 인종과 문화를 가진 쿠마일 씨에게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며, 이는 아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를 무시하거나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등 인종 차별로 이어졌다.

우리 회사의 한국 사람들이 보통 외국사람 부를 때 ‘야, 인마, 새끼야’

20)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33-34쪽.

21) 여기서 한국인이란 한국 국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의 역사와 언어, 전통과 문화에 귀속되어 한민족의식을 공유하는 현지인들을 의미한다.

라고 해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막 욕해요. 다 알고 있는데 다 참고 다닌 거예요. 그것 좀. 인간차별? 그런 거 있어요. (2018년 7월 14일, 인천, 1차 인터뷰)

쿠마일 씨가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그 역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신경증적 반응을 보였다. 아래 구술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갖는 무시와 편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며, 술과 돼지고기²²⁾ 등 한국인들의 식문화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장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볼 때, 마음속에는 다른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잘 안 좋아해요.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음속은 다른 거 같아요. 매일 느끼죠.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죠. (중략) 저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일 못해도 제가 그 사람보다 일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돌린 기계 못 만져요. 제가 기술이 있어서. (중략) 기술 좀 있어서 프로그램 짜서 세팅하고 기계 고장나면 고치고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못해요. (그런데: 인용자) 잔소리를 해요. (중략) 외국 사람들이 하는 행위 등을 보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유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뒤에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왜 술 안 먹냐, 술 맛있어, 사줄게”하면서 “돼지고기 맛있어”하면서. 우리가 안 먹는데 왜 맛있다고 하는지. 그리고 암튼, 그런 게 좀 있어요. (2018년 7월 15일, 인천, 2차 인터뷰)

한국 사회의 배제와 혐오는 성, 인종, 경제, 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차별에 바탕을 둔 배제와 혐오는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차이들이 얽혀 더 크게 드러난다.

22) 이슬람 경전 꾸란(Qur`an)에는 금지된 행위양식과 음식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술과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금지 양식으로 돼지고기는 전혀 먹지 않으며, 허용된 식용 육류의 경우에는 이슬람식으로 도축한 고기만을 먹는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예배시간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하나의 식문화 관습으로 인식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쿠마일 씨가 경험한 차별은 인종과 경제, 종교적 차별이 더해진 중층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색 피부의 무슬림 노동자’에 가해진 차별로 검은 피부색을 차별하는 인종차별과 아시아인 노동자를 향한 경제적 차별,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 차별이 더해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사람에 대한 무시와 피부색으로는 우리보다 더 검은 유색인종에 대한 무시, 그리고 종교적으로 낯선 이슬람에 대한 단편적인 거부감과 혐오가 뒤엉켜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한 쿠마일 씨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한국인을 이해하다가도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를 둘러싼 식생활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화가 나곤 했던 것이다.

2. 문화 정체성의 충돌: 한국 국적의 이슬람 정체성

쿠마일 씨의 한국 정착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으로 이주 2년 후인 2014년에 베트남계 한국인 여성²³⁾과 결혼했다. 2019년 4번째 인터뷰 당시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7년에 한국 국적을 신청하여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 후 두 명의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은 배우자의 국적을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아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쿠마일 씨는 자녀들이 이슬람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 아니 “무조건” 그래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도 귀화신청으로 곧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만, 이슬람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면담자: 첫째 딸은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23) 그녀는 사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이주해온 한국인 출신 아버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베트남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2005년 한국에 왔다. 쿠마일 씨 가족의 문화정체성 구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그녀를 만나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그녀가 필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구술자: 한국 사람이요.

면담자: 파키스탄 사람 아니고?

구술자: 네.

면담자: 아니, 국적 말고

구술자: 한국사람이요. (중략) 주아도(가명, 첫째 딸이름: 인용자)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사람 되고 싶죠. 한국에 계속 살고 싶으니깐, 한국 국적 따야죠.

면담자: 그런데 이슬람 교인으로서의 평생을 살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아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거잖아요?

구술자: 아뇨,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2018년 7월 15일, 인천, 2차 인터뷰)

그가 한국 국적을 신청한 것은 아래 구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비자일 경우 한국으로 귀화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화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국적의 경우 파키스탄 국적보다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은행대출 등의 용이함과 한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생긴 빛과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며 한국에서 장기간 일할 것을 결심했으며 5년 동안 계속 야근을 하며 열심히 일했다²⁴⁾. 이주 후 7년이 지난 2019년 5월 네 번째 인터뷰 당시 파키스탄의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돌아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결혼 전 그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비자를 변경하고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을 인하대에서 이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우뚱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여성을 만나 결혼하면서 결혼이민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고, 귀화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2019년 11

24) “내가, 나라 가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고생도 다 하고, 남동생 네 명인데, 개네들 다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젠 내가: 개네들 데리고 개네 공부시키자’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속 일했어요. 5년 동안 계속 야근했어요. 야근 돈 많이 되니까 야근 수당 같은 거 있어요. 5년 동안 계속 야근하고”(2018년 7월 14일, 인천, 1차 인터뷰)

월에 드디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실제로 이주국의 국적 취득은 이주민이 귀화를 통해 “국민으로서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절차적 권리를 최종적으로 획득하여 이주민의 정착이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또는 이주민은 귀화를 통해 국민 또는 “시민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고, 투표권을 포함한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다. 또한, “본국의 가족 및 친척을 초청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허용되었던 직종을 포함해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귀화자는 생애 전 과정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해외 체류 시 자국민 보호 혜택 등을 받기도 한다”.²⁵⁾

면담자: 그럼 지금 국적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구술자: 제가 한국 국적을 신청했어요. 작년에. 그거 결정 기다리고 있어요. (중략) 저는 취업비자 있을 때 결혼하고 그 때 결혼이민비자로 변경했어요. 결혼이민비자면 한국에 평생 살 수 있어요. 국적 안 따도, 귀화 안 해도 평생 살 수 있어요.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결혼 후 2년 이따가 신청할 수 있어요.

면담자: 굳이 한국국적 신청한 이유는요?

구술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외국나라 갔다 왔어요. 1년에 1번 다녀와요. 한 달 월급을 따로 빼놔요 여행 가려고. 근데 한국 여권이 비자 없이 170여개 나라를 여행 갈 수 있어요. 그 여권 가지고 아무 나라 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가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국적 따면 한국에 혜택 같은 게 많아요. 외국 사람들은 신용카드, 대출을 안 해줘요. 제가 짐사려고 했는데 제 명의로 대출을 안 해줘요. 한국 사람만 그런 거 지원해줄 수 있다고. (2018년 7월 14일, 인천, 1차 인터뷰)

25) 김현미, 「귀화 이주민과 문화적 권리」, 『한국다문화주의 비판』 (서울: 엘피, 2017), 115쪽.

이러한 전략적 국적 선택과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온 삶과 달리 그는 충실한 무슬림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에서는 한두 달 정도 기르고 잘랐던 수염을 이제는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를 생각이다. 쿠마일 씨는 종교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싶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는 등 이슬람 인으로서 삶을 다잡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었다.

면담자: 원래는 수염 안 기르셨잖아요. 파키스탄에서도 안 기르시고, 기르게 된 계기가

구술자: 저는 종교에 대해서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종교와 연결된 문제라. 종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염을 깎아도 괜찮지만 안 하면 더 좋다고. 그래서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싶어서. 여자 꼬실 일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결혼을 해서. (예전에는: 인용자) 한두 달 정도 기르다가 잘랐어요. (중략) 이제는 계속 기를 거예요.

면담자: 그렇게까지 기르신 적이 있어요?

구술자: 아니요. 처음이에요. (2018년 8월 25일, 인천, 3차 인터뷰)

쿠마일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이슬람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첫째 아이가 10개월이 됐을 무렵 파키스탄으로 보내 1년 동안 부모님과 생활하도록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모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그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왔고, 방문비자가 끝날 즈음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되자 아이를 함께 보냈던 것이다. 당시 그는 주야 맞고대로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고, 부인은 문화적으로 베트남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아이를 이슬람인으로 키울 수 없었다. 아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이슬람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파키스탄으로 보냈던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의 조우와 내적 갈등

면담자: 주아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술자: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주아가 나이가 10개월 정도 될 때 우리 엄마 날아가야 돼서(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해서: 인용자) 그래서 주아 데려갔었어요. (중략) 거기서 주아가 1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1년 되기 이틀 전에 내가 데려왔어요.

면담자: 부인이, 사모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주아 엄마가, 왜 어머니님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구술자: 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여기 문화가 우리 문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문화부터 배우고 여기 들어오면, 이거 익숙하지 않고 우리 문화가 따라해야 하잖아요, 이슬람 사람이라는, 그거부터 좀 배우고 들어오면 좀 우리도 문화가 좀 배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했어요, 근데 너무 어리니깐 저도 자꾸 걸려서요, 마음이. 아니 그 나이에 애기가 보냈으니깐 우리 둘이 매일 볼 수도 없고, 그때 얼마나 귀여운데, 일 년이나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그때 데려온 거 예요. 아니면 계속 거기서 그 학교 다니기 전까지, 못 참았어요. ((웃음))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2018년 7월 15일, 인천, 2차 인터뷰)

필자는 인터뷰 당시 쿠마일 씨의 전략적 국적 선택과 이슬람 교인으로서의 삶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느꼈다. 가족 구성원 모두 국적을 전략적으로 한국으로 선택하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은 “무조건 이슬람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한국인 국민정체성을 가진 연구자의 사고와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충돌은 무슬림과 한국인이 가진 종교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꼬집기라도 하듯이 쿠마일 씨는 이슬람 종교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연구자에게 반문하곤 했다.

구술자: 종교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규칙을 따라야 하니까. 제가

면담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구요?

구술자: 하늘에 누가 저 보고 있나요? 안 봐요. 제가 뭐 먹는지, 술

마시는지, 돼지 먹는지 안 먹는지 누가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이
종교가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면담자: 무슨 종교인지 모르지만?

구술자: 아니 무슨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교는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종교는 우리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거의 백삼십오억 명이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명도 이슬람 종교는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한명도.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 강해요. 음 내가 종교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럼 뭐
제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저는 안 지켜도 되잖아요. 보는 사람 없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시키는
대로 하나까. 그래도 거짓말도 해도 안 되고 누구 유희해도 안 되고 도둑질
하면 안 되고 나쁜 짓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2018년 8월 25일, 인천, 3차 인터뷰)

한국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종교를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일 뿐 “무조건” 전수해야 하는
집안의 내력이나 고수해야 할 가문의 전통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무슬림은 집안의 내력, 가문의 전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혈통에
의해 무슬림이 된다. 혈통과 상관없이 무슬림이 되려면 이슬람 신앙을
고백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무슬림 가족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그들은 날 때부터 이미, 저절로 무슬림이 되며,
개인적인 확신, 신념, 고백과 상관없이 없다. 이들은 법적으로도 무슬림이며,
자신의 무슬림 정체성은 개인에 의해 규정되기보다 공동체, 사회, 집단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무슬림 정체성은 한국인들의 기독교인
혹은 불교인이라는 신앙고백과는 질적으로 다른 요소를 담고 있다.
개인의 종교적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가문의
정체성으로서의 토대를 지닌 가문의 구성원이라는 표지로 주어진다.²⁶⁾
쿠마일 씨가 연구자에게 되물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은
이런 맥락 해석되어야 한다. 그는 필자가 생각하는 종교와 그가 생각하는

26) 김동문,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구리: 선울, 2017), 178-186쪽.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이다. 또한, 그의 부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무조건 이슬람 교인이여야 한다는 생각 역시 무슬림과 결혼한 사람과 자녀들에게 부여되는 가문의 전통이자 표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쿠마일 씨와 필자 사이에 놓인 종교에 대한 이러한 인식 차이는 각 국가의 국민정체성에 종교가 차지하는 영향력 및 인식체계와 관련이 있다. 브루베이커에 의하면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nationhood)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혹은 누가 국민인가를 스스로 규정하는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국민정체성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짓는 포섭과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국적, 언어, 소속감, 피부색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성격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술만은 이를 시민형, 문화형, 종족형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를 시민적 정체성(영토, 시민권, 정치적 신념 공유, 정치적 제도화 권력 존중), 문화적 정체성(종교, 언어, 전통), 종족적 정체성(조상, 혈통)으로 구분한다.²⁸⁾ 술만의 구분에 따라 각국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정체성은 문화적 정체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시민권을 획득했다고해서 문화적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냥 회사에만 많이 있고. 얘기는 해요. 거기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금식이라 뭐 못 먹는다. “어우 어떻게 사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매우 건강하고. 그리고 저... “너 한국사람 될 거니까” 뭐 “한국 국적 딴 거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밥 먹어”. 근데 국적이니 종교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캐나다 가서도 이슬람 사람이고, 미국 가도 어느 나라 가서도 종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국적, 근데 그거는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좀 불편하긴 해요. (2019년 5월 15일, 인천, 4차 인터뷰)

27) Brubaker, Rog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 75.

28) Shulman, Stephan, “Challenging the Civic/ethnic Dichotomie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2002), p. 559.

위 구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의 이슬람 정체성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즉, 법적 지위로서 국적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축적해 온 문화 정체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국적 취득이 문화적 동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인 정체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별과 배제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생존 전략으로 이주자들은 귀화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적 취득을 통해 한국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지위만 변할 뿐 이주자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종교, 관습, 생활양식 전체”가 변하지는 않는다.²⁹⁾ 필자는 쿠마일씨의 귀화를 이슬람 정체성의 삭제나 변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주류 문화로 동화되는 것을 상상했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이주자들의 문화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V. 나가며

쿠마일 씨의 구술생애를 통해 그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을 정리하면, 그는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 9식구를 먹여 살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을 감행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누나들이 있었지만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파키스탄의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아홉 식구 중 돈을 벌었던 것은 그 혼자였고, 파키스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월수입의 다섯 배나 되는 한국의 경제수준 및 임금체계는 그에게 국경을 넘어 이주를 감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글로벌 자본주의는 국가 간 임금 및 고용기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본을 쫓아 노동(자)이 이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쿠마일 씨의 경우 고용기회보다는 임금 차이에 의한 이동이 주된 이유였다. 이러한 쿠마일 씨의 내러티브는 초국적 이주를 촉발시킨 파키스탄과 한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준다. 또한, 쿠마일 씨의 이주 생애를 통해 송출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국가 간 임금 차이,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29) 김현미, 「귀화 이주민과 문화적 권리」, 118쪽.

초국적 이주의 구체적 일반성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쿠마일 씨의 생애를 유형화하면,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초국적 이주노동을 감행하고 이주국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전략적으로 국적을 선택함과 동시에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초국적 이주노동자의 생애이다. 이주노동자 쿠마일 씨와의 한국 선주민과의 조우는 접경지대 히스테리를 유발하고 이것은 서로 다른 정체성, 즉 국민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우했을 때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자가 담지한 ‘종교’와 ‘문화적 관습’은 갈등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슬람교라는 종교 정체성을 축적해 온 쿠마일 씨와 한국인들과의 조우는 종교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체계와 문화적 정체성으로 인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필자와 이주노동자 쿠마일씨와의 인터뷰 공간과 연구과정 역시 편협한 국민국가적 경험과 관점에 속박된 한국인 필자의 시공간적 후진성을 들춰내기에 충분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필자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은 한국인 국민정체성에 갇혀 타 종교 및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무지에서 발생한 차별적 시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이주자들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해 온 특정한 문화적 관습들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한국의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분리나 위계를 전제하고 한국의 주류 문화와 관습에 이주자들을 동화시키거나 사회적 통합에서 아예 배제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설사 이주자들이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종교, 관습, 생활양식 자체가 바뀌는 것 또한 아니다.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역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의 편협한 국민국가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³⁰⁾

30) 김현미, 같은 논문, 140-141쪽.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 oursun21@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내적
접경공간(inner contact zones), 접경지대 히스테리(borderlands
hysteria),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

(투고일: 2020.04.14, 심사일: 2020.05.04, 게재확정일: 2020.05.06.)

<국문초록>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의 조우와 내적 갈등:
한국 이주노동자의 구슬생애사를 통하여

박선영

이 글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파키스탄 남성노동자의 구슬생애사를 통해 초국적 이주의 삶을 유형화해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을 분석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의 조우와 내적 갈등에 대해 고찰한다. 생애사는 개인의 삶의 이력 흔적으로써 특정 사회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구성물이며, 구슬생애사 연구는 개인들의 구체적 생애를 통해 그 사회의 변동과 개인의 행위지향의 변화를 분석하고 하나의 사례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슬자인 쿠마일 씨의 생애를 유형화하면,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초국적 이주노동을 감행하였고, 베트남계 한국여성과 결혼 후 전략적으로 국적을 선택함과 동시에 무슬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초국적 이주노동자의 생애를 보여준다. 이주노동자 쿠마일 씨가 살아온 생애와의 조우는 편협한 국민국가적 경험과 관점에 속박된 한국인 필자의 시공간적 후진성을 들춰낸다. 이 글은 다른 사회의 문화, 즉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 무지가 이주자와의 조우에서 어떤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전략적 이주와 국적 선택 속에서 이슬람정체성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쿠마일 씨의 생애를 통해 선주민이 가진 견고한 국민정체성의 한계를 비판한다.

<Abstract>

Encounters, and Internal Tensions
between Migrant Worker and Local Resident
-An Oral Life History of Migrant Worker in South Korea-

Park, Sunyoung

This article typifies the lives of transnational migration through the oral life history of the Pakistani male migrant worker in South Korea, and examines the encounters and internal tensions between migrant workers and local residents by analyzing the researcher's biases of migrant workers. Life history is a construction created by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living in a particular society at a certain time by the history and trace of the individual's life. And a study on the oral life history is to analyze the movement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society and the change of individual's agency orientation through the specific lives of individuals, and to typify a case. When the life of Mr. Kumile, the narrator of this study, is typified, he was born in a poor family, carried out transnational migrant labor and got married internationally. He makes strategic decision of nationality and practices his life as a Muslim simultaneously. The encounter with the migrant worker Mr. Kumile discloses the spatiotemporal backwardness of the Korean researcher who has been bound by narrow national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This article explores how ignorance arising from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other societies, namely, Islamic culture and religion, is causing conflicts in the encounters with migrants. In addition, it also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solid national identity of local residents through the life of Mr. Kumile who maintains his own identity in strategic migration and nationality choices living.

참 고 문 헌

1. 사료(인터뷰 자료)

- 2018년 7월 14일, 인천, 1차 인터뷰.
2018년 7월 15일, 인천, 2차 인터뷰.
2018년 8월 25일, 인천, 3차 인터뷰.
2019년 5월 15일, 인천, 4차 인터뷰.
2019년 12월 12일, 인천, 5차 인터뷰.

2. 단행본

- 김동문,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구리: 선율, 2017).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과주: 돌베개, 2014).
레나토 로살도, 권숙인 역, 『문화와 진리』 (서울: 아카넷, 2000).
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혁 역, 『제국의 시선』 (서울: 현실문화, 2015).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9년 12월호).
Brubaker, Rog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Gilbert, Kathleen R, "Introduction: Why Are We Interested in
Emotions?", in Kathleen R Gilbert (ed), *The Emotional Nature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CRC, 2001).

3. 논문

- 김준환, 「한국 내 이주무슬림의 종교와 문화번역-파키스탄 이주노동자를

- 중심으로」(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영천 이동성,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19권 4호(2011).
- 김현미, 「귀화 이주민과 문화적 권리」, 『한국다문화주의 비판』(서울: 엘피, 2017).
- 이민경, 「이주정착귀환의 행위자 네트워크: 베트남 미등록 노동이주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2집(2016).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집 3호(2005).
- Kouritzin, “Bringing Life to Research: Life History Research and ESL”, *Test Canada Journal/Review Test Du Canada*, 17-2(2000).
- Shulman, Stephan, “Challenging the Civic/ethnic Dichotomie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2002).
- Wall, Sarah, “An Autoethnography on Learning about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2(2006).

4. 웹 사이트(신문기사 및 사진자료)

「파키스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매일노동뉴스』, 2006년 6월 26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75> (검색일: 2020년 1월 10일)